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Vol. 65 [2010 AUTUMN]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경북 의정활동



제242회 임시회 - 민족의 섬 독도에서

개원사

독도 주권확보, 해양과학연구와 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지역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독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원식 정무부지사님, 김화진 부교육감님, 울릉군의 정윤열 군수님과 김병수 군의회 의장님, 최수환 교육장님, 또 경상북도의정회 우영길·김종섭 부회장님, 김만영 사무총장님!

오늘 독도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3백만 도민은 물론 7천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나아가 독도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수호한다는 굳은 결의와 다짐을 재천명하기 위해서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명백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자 독도의 달 및 독도 거주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개발 경쟁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우리 주권을 확보하고 해양과학연구와 자원개발 등을 통해서 독도를 미래의 성장동력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9대 도의회 원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9대 도의회가 연구하는 의회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질문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울릉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이 상 효

|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

제242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2010년 8월 26일 16:30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여 9월 9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5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6일 (목) 오후 16시 30분에 독도에서 개의하여 제2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여론청취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임 보고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진현 의원, 나현아 의원)을 실시한 후 산회하였다.
- 제3차 본회의는 8월 31(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배수향 의원, 정상진 의원, 김희원 의원, 이 달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북도 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임 보고,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등을 의결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개최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이상호 의장은 8월 26일 독도에서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 독도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다.



▲ 이상호 의장은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 국민 대통합을 통한 국가번영을 바라는 나라사랑의 간절한 마음으로 만세삼창을 선창하였다.



▶ 이상호 의장은 9월 7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2010경북국제항공포럼에 참석하여 우리 경북이 항공부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혁신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이상호 의장은 9월 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대경권 지역발전 설명회에 참석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대구·경북 경제권은 물론이고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등과 초강력 경제권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이루어 동남권신공항밀양유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현안사업추진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이상호 의장은 7월 22일 도청강당에서 열린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미래 경북전략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상호 의장은 8월 13일 55대승호 귀환대책 위원회를 방문하여 피랍승원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이상호 의장은 9월 11일 경주코오롱 호텔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제창 40주년을 맞아 주한 아프리카대사 초청 인사말을 통해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기여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가난을 극복하고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인류와 공존하고 번영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이상호 의장은 7월 29일 도청강당에서 열린 경상북도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브랜드화 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상조 부의장은 9월 15일 경일대학교에서 개최한 자동차부품시험 지역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등 신성장동력사업의 산실로써 역할을 당부했다.



▲ 송필각 부의장은 9월 6일 구미1대학교에서 열린 제45회 전문기능경기대회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옥)은 8월 30일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예결·독도수호·동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의회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은 9월 3일 동북아지치단체인연합사무국 등을 현지방문하여 주요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은 9월 2일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지방문하여 복지시설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9월 2일 영덕군 백석항을 현지 방문하여 항만시설 공사 추진현황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9월 2일 낙동강살리기 사업 제37공구 구담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9월 1일 최근 통합한 영해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개축현장을 둘러 보며 공사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학부모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은 9. 7 ~ 9. 8(2일간) 교육청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윤창욱 위원장(구미)



이정호 부위원장(포항)



강영석 위원(상주)



구자근 위원(구미)



김명호 위원(안동)



김하수 위원(청도)



김희원 위원(칠곡)



나기보 위원(김천)



박권현 위원(청도)



박병훈 위원(경주)



서정숙 위원(비례)



이경임 위원(비례)



이영식 위원(안동)



정영길 위원(성주)



황이주 위원(울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Steering Committee

제2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 2010년 8월 30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하였다.

이번에 결의한 3개의 특별위원회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과 활동기간 내 제출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15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독도수호특별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끝으로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는 세계화시대 영남권 5개 광역시·도를 아우르는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2010년 9월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결의하였으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결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의원 품위손상 등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는 우리 경북의 핏줄인 낙동강을 살려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강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의회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뜻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경북발전의 백년대계인 도청이전사업에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청의 성공이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각종 도정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7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박진현(영덕) 의원과 김수용(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은 시기를 두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

특별위원회 설치 현황

위 원 회 명	구 성 일	위원수	활 동 기 간	위 원 장	부 위 원 장	비 고
예 산 결 산 특 위	'10. 8. 30	15	'11. 6. 30	박병훈(경주)	정영길(성주)	
독 도 수 호 특 위	'10. 8. 30	9	'12. 6. 30	전찬걸(울진)	이용진(울릉)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위	'10. 8. 30	9	'12. 6. 30	박기진(성주)	김희원(칠곡)	
윤 리 특 위	'10. 9. 9	9	'12. 6. 30	한혜련(영천)	배수향(김천)	
서 민 경 제 특 위	'10. 9. 9	9	'12. 6. 30	장두욱(포항)	홍진규(군위)	
낙 동 강 살 리 기 특 위	'10. 9. 9	9	'12. 6. 30	채옥주(포항)	구자근(구미)	
도 청 이 전 지 원 특 위	'10. 9. 9	9	'12. 6. 30	박진현(영덕)	도기욱(예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현지방문 및 경제과학분야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실시



장경식 위원장(포항)



황이주 부위원장(울진)



김세호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도기욱 위원(예천)



박성만 위원(영주)



박진현 위원(영덕)



윤창욱 위원(구미)



정영길 위원(성주)



한혜련 위원(영천)



황상조 위원(경산)

Planning &
Economy Committee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 9월 1일 개최하여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설립계획의 건을 심사했으며, 9. 2 ~ 3(2일간)에 걸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LG 디스플레이(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첫 상임위 현지방문에서는

9월 2일 첫 현지방문지로 각종 자금지원과 판로지원, 기술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상북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기업인 LG디스플레이(주)를 방문하여 기업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3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경제과학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제과학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지능로봇 연구소를 비롯한 10개 출연출자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각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주요업무와 당면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첨단 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앞서나가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경제과학단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에도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과학 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경제과학단체가 열심히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현지방문하여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북아시아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 경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새마을아카데미 현지확인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의결



권영만 위원장(봉화)



김하수 부위원장(청도)



구자근 위원(구미)



김영식 위원(경산)



김종천 위원(영주)



나현아 위원(의성)



송필각 위원(칠곡)



이경임 위원(비례)



채옥주 위원(포항)

Administration Health &
Welfare Committee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새마을아카데미 등 4개 기관 및 시설에 대해 현지방문 실시하여 운영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1차 상임위(8. 31)에서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번에 의결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정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지급되던 특수지 근무수당을 경북도의 지역 특성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벽지·도서 등의 특수지역과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생활상 불편이나 근무여건상 열악성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것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20년이상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신규투자과 고용창출 확대를 통한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은 첫째 날인 9월 1일(수)에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와 교육, 특히 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향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서 오후에는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원 프로그램 등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장애인 서비스 시설 및 작업현장 등을 둘러보고 격려하였다.

둘째날인 9월 2일(목)에는 지역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복지관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 시설을 견학한 후, 앞으로 지원방안과 보완해야 할 서비스 체계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노인들이 요양하는 시설인 영천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견학한 후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다.

앞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지방문을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분석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제안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역 등 주요사업 현장확인



장세헌 위원장(포항)



이영식 부위원장(안동)



김기홍 위원(영덕)



김말분 위원(비례)



김창숙 위원(비례)



박병훈 위원(경주)



배수향 위원(김천)



이시하 위원(문경)



이정호 위원(포항)



전인철 위원(구미)



전찬걸 위원(울진)

Culture &
Environment Committee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독도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광복 6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에 대한 도발적인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고,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일본방위 백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 중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 일본 문부성의 독도 교육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 침탈 야욕과 책략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결의내용은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본은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 침탈해간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어서

9월 2일에서 9월 3일까지 2일간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분야 업무추진현황을 확인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다.

9대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이번 상임위 현장 방문은 첫째날 9월 2일에는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역사마을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여 등재과정에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을 위로·격려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하여 국학자료 조사·수집 현황, 문집 번역사업, 인성함양 및 전통문화 체험연수 업무 등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국학진흥원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꾸준한 연구활동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학 보급은 물론 도민 인성함양 교육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날인 9월 3일에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도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특화사업 개발과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어서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안동 하회마을과 연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항구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수산위원회 쌀전업농 임원과 간담회 개최 및 현지확인 청취



이상용 위원장(영양)



박권현 부위원장(청도)



강영석 위원(상주)



김대호 위원(구미)



나기보 위원(김천)



박기진 위원(성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왕식 위원(의성)



정상진 위원(예천)



최학철 위원(경주)



한창화 위원(포항)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중인 2010. 8. 30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농수산위원회는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회장 문정복)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몇 년간 쌀값 하락에 대한 범국민적 쌀 소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쌀 전업농연합회의 역할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2010. 9. 2. ~ 9. 3.까지 3개지역(영덕, 영양, 의성) 농수산업 현장을 찾아 농어민들의 생업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현지 확인을 하였다.

● 첫째 날인 9월 2일에는 영덕 병곡면 대진리 소재 우렁챙이 양식장을 찾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우렁챙이 폐사 원인이 무엇인지, 대량 폐사시 어업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어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곧이어 고부가 어패류 종묘대량생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지역 특화품종의 지속적인 생산 및 자원화에 힘을 쏟고 있는 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방문하여 김태주 소장으로 부터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대한 일반현황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서 농수산위원들은 그 동안 종묘생산 실적과 향후 수산자원 개발 방향을 묻는 한편,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기후온난화,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최근에는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돼 수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Agriculture &
Fisheries Committee



9월 3일 오전에는 영양고추시험장과 영양고추유통공사를 방문하여 박상구 영양고추시험장으로부터 고추 유전자원 수집·보존과 신품종 육성현황, 생산비 절감기술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실적 등 그 동안의 성과를 듣고,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지역 고추 농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고,

이어 영양고추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유통공사 일반 현황을 청취하고 흥 고추 수매 물량 및 수매단가를 묻고, 고추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영양고추유통공사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의성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정성진)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최근 쌀의 재고량 증가, 수입개방, 소비자 요구변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쌀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쌀조합공동법인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용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으로 파악된 농어민들의 각종 의견들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수산업 현장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농어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농수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및 주요현안 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고우현 위원장(문경)



김명호 부위원장(안동)



곽광섭 위원(고령)



김수용 위원(영천)



김희원 위원(칠곡)



윤성규 위원(경산)



이용진 위원(울릉)



장두욱 위원(포항)



장영석 위원(구미)



한재석 위원(상주)



홍진규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 어려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도 건설관계자 등과 당면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예정지와 낙동강살리기사업 제37공구 구담보 사업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김천 혁신도시건설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정책간담회

- 9월 2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의회 제2별관 회의장에서 건설 소방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관계자, 건설도시 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하도급 보호 방안마련,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방안,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참여제도 마련, 소규모 복합공사 합리적 설정건 등에

Construction & Fire Defense
Committee



관하여 서로 격의 없이 토의하고 제도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하였으며, 도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수용하고,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들은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하고 또 장기적인 과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제도개선토록 하였다.

▶ 주요 현안사업장 현지확인

- 9월 2일 오후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예정지 현장에서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은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경북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 안동에 위치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제37공구 구담보 설치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 한 뒤 우기 및 수해방지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 9월 3일 오전에는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어 오후에는 김천 혁신도시건설사업 현장에서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활동,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심사



김 영 기 위원장(청송)



서 정 숙 부위원장(비례)



김 원 석 위원(교육1)



박 태 환 위원(교육5)



심 정 규 위원(비례)



이 달 위원(경주)



최 우 섭 위원(교육2)



추 재 천 위원(교육3)



홍 광 중 위원(교육4)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영해중·고등학교, (가칭)경북 학생해양수련원 건립예정지, 영덕교육지원청 이전예정지, 포항교육지원청 등을 찾는 등 현지확인 활동을 하였다.

첫째 날인 1일 최근 통합한 영해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개축 현장을 둘러 보며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학부모 대표로부터 학교 숙원사업인 학교 진입로 부지 매입 요청 건의를 듣고 집행부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이어 (가칭)경북학생해양수련원 건립 부지와 영덕교육지원청 이전예정지를 둘러 보았다.

다음 날인 2일에는 포항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일반 현황과 현안사업보고를 들은 후, 포항교육지원청 이전 예정지를 둘러 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번 현지 확인은 9월 3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교육 여건과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Education Committee





안전심사에서는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1호)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온라인 민원 수수료 무료화 계획에 따라 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에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을 추가하며, 조례 인용 법령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면제 고무인 날인 생략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기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 방법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에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을 추가하면 “인터넷 발급 증명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은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 이름 표기를 바르게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다.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38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3조 1,058억 7,500만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급식소 증·개축 시설비 36억원, 다목적강당 대수선 및 증축 200억원, 생활관 대수선 및 증축 57억원, 냉난방시설 및 화장실개선 254억원, 경산특수학교 신설 187억원, 교실증축 및 시설개선 194억원, 포항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66억원, 영덕·청도 교육청 신축·이전에 95억원, 직속기관 청사 대수선 및 증축 등 교육행정기관 여건개선에 59억원, 사립학교 교실 증·개축 등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에 146억원을 편성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시설사업에 집중 투자한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 목적이 지정된 목적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중 유아교육체험원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추진계획 미흡으로 유아교육체험원 총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5억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박병훈 위원장(경주)



정영길 부위원장(성주)



김기홍 위원(영덕)



김영식 위원(경산)



김창숙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나현아 위원(의성)



박태환 위원(교육5)



배수향 위원(김천)



이왕식 위원(의성)



장영석 위원(구미)



정상진 위원(예천)



추재천 위원(교육3)



한재석 위원(상주)



한창화 위원(포항)

Special Committee of
Budget & Accounts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 각종 교육시책사업 추진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경상북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동안

- 소관상임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기존편성된 예산인 2조 9,521억보다 1,538억원(5.2%)이 증가한 3조 1,059억원의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에서 중복투자과과다계상된 유아교육체험원조성 15억원, 교장공모제실시 학교운영비지원 10억 8천만원, 사립학교시설비지원 14억 6천만원 등 모두 14건에 대하여 90억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심의에서

-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9대 의회가 개최되어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인 만큼 교육청의 재정 운용 상황과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하기 위하여 2일에 걸쳐 심사를 하였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박병훈 위원장이 심사과정에서 경북도내 시군의 교육비지원조례 제정 촉구, BTL사업에 대한 입찰 등에 문제소지 제거 요구, 각종 자료 사전제출 요구를 하는 등 심사기간동안 예결위 의원들은 교육청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대안제시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각종 교육시책사업 추진과 공교육 활성화 및 단위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만큼 심사기간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와 사업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사업 시행상의 애로점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교육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혜련 의원 부위원장 배수향 의원 선출



한혜련 위원장(영천)



배수향 부위원장(김천)



김대호 위원(구미)



김창숙 위원(비례)



나현아 위원(의성)



박태환 위원(교육5)



장영석 위원(구미)



추재천 위원(교육3)



한재석 위원(상주)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 2010년 9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혜련(영천,3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배수향(김천,초선) 의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혜련 의원 “도의원들이 윤리강령 실천을 통하여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수향 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Special Committee of Ethics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장두옥 위원장(포항)



홍진규 부위원장(군위)



김수용 위원(영천)



김영식 위원(경산)



김희수 위원(포항)



서정숙 위원(비례)



전인철 위원(구미)



최학철 위원(경주)



황이주 위원(울진)

서민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 2010. 9. 9(목)일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포항출신 장두옥 의원과 부위원장에는 군위출신 홍진규 의원을 선출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장두옥)에서는

- 최근 경상수지 흑자와 취업자의 증가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속되는 청년실업과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 생활안정을 위해 현장에 밀착하여 소통함으로써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은 결코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전제 하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 등의 정책들이 서민 일자리 제공 등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ecial Committee on
Ordinary People's
Economy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독도수호 업무보고 청취



전찬걸 위원장(울진)



이용진 부위원장(울릉)



김말분 위원(비례)



김명호 위원(안동)



이경임 위원(비례)



이달 위원(경주)



이왕식 위원(의성)



최우섭 위원(교육2)



한창화 위원(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42회 임시회(8. 30일)에서

- 총 9명으로 특별위원을 구성하였으며, 1차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은 울진 출신 전찬걸 의원, 부위원장에는 울릉 출신 이용진 의원을 선출하고 특위위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차 회의(9. 9일), 독도수호 주요업무보고에서는

- 울릉 출신 이용진 부위원장은 독도에 상주하면서 독도 주민자격을 가진 독도해설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말분 의원은 일본의 독도교육은 초·중·고부터 조직적으로 시키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적고 내용이 미비하므로, 많은 교과서에 기술되어 올바른 독도알기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은 독도에서 전통민속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적 측면의 접근을 주문하였으며, 의성 출신 이왕식 의원은 독도를 방문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으니 학생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편운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최우섭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독도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은 독도관련 현안사업 해결에 문화재청,

Special Committee of
Dok-do Protection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실효적 지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편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현안 사업 해결과 영토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으로 국회 독도영토수호 대책특위, 국민총리실 영토관리대책단, 국토해양부 등을 협의 방문하고 일본영사관 항의방문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만행과 야욕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집행부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정부의 2010년판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미국·유럽·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로도 배포하고 있어 사실상 외교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기술에 이어 이번 사건이 독도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규탄성명서는 일본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심경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것이 불과 한달 전에 일로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일본 민족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행동에 분개하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야욕적인 침략행위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모든 문구의 즉각 폐기와 과거사는 물론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모든 망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요구하였다.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수호의 결연한 의지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도 주권국가로서의 자존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독도수호사업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촉구하였다.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박기진 위원장, 김희원 부위원장 선임, 주요 업무 보고 실시



박기진 위원장(성주)



김희원 부위원장(철곡)



김기홍 위원(영덕)



김원석 위원(교육)



김하수 위원(청도)



나기보 위원(김천)



박성만 위원(영주)



윤성규 위원(경산)



한혜련 위원(영천)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진)는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8. 30(월)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과 대구,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의회가 합의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에 박기진 의원(재선, 농수산위원회)을 부위원장에 김희원 의원(초선, 건설소방위원회)을 선임하였다.

또한 9. 9(목) 제4차 본회의에 앞서 10:00부터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구성 후 첫 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공항 입지를 두고 밀양과 가덕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신공항이 반드시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유치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행부에서도 4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Dongnam Special Committee to Attract New International Airport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채옥주 위원장, 구자근 부위원장 선임



채옥주 위원장(포항)



구자근 부위원장(구미)



강영석 위원(상주)



곽광섭 위원(고령)



박권현 위원(청도)



심정규 위원(비례)



이정호 위원(포항)



정상진 위원(예천)



정영길 위원(성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 마지막 날인 9. 9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환경적 수생태계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재선, 한나라)이, 부위원장에는 구미출신 구자근 의원(초선, 한나라)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이다.

채옥주 위원장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반드시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pecial Committee on
Nakdong River Revival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 선임



박진현 위원장(영덕)



도기욱 부위원장(예천)



김명호 위원(안동)



김세호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시하 위원(문경)



이영식 위원(안동)



홍광중 위원(교육4)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 마지막 날인 9. 9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제8대 의회에서 확정된 3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영덕 출신 박진현 의원(재선, 한나라)이 부위원장에는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초선, 한나라)이 선출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이다.

박진현 위원장은 도청이전은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단순히 도청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의 신 성장을 이끌어 가는 명품행정 지식산업 도시의 목표아래 경북의 수도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Special Committee of Provincial
Building Removal Support



2010년 8월 26일(목) 제24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민들에게 울릉 ~ 독도 간 여객선 운임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 제언

이용진 의원(울릉)



먼저, 오늘 포항에서 출발해서 울릉 도착해서 독도까지, 다시 또 울릉까지, 약 여덟 시간의 배를 타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하여 첫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풍요로운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운열 울릉군수님, 군의회 김병수 의장님, 최수환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서 밟고 있는 이 땅은 국토의 막내 동해의 외로운 섬 울릉도의 자섬이며 민족의 섬인 독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어 왔으며 또한 보도를 통해 독도라는 지명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이곳까지 찾아오기는 너무나 많은 힘이 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경우 맑은 날이 연 38일에 그치고,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해상기상특보가 114회나 발효되는가 하면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으로 인해 선박운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4월에서 10월까지 독도를 찾고 있으나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여객선 운임이 4만 5,000원으로, 특히 육지에서 독도까지

왔다 가면 최소한 왕복 16만원의 선비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독도를 지키며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울릉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에게는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땅 독도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울릉군민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포항 ~ 울릉 간 여객선 운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들에게도 울릉~독도 간 여객선 운임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제언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에 입도하는 시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하여 시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형편임에도 포항 ~ 울릉 간 여객선 운임의 지방비 50%, 2009년 9만 2,850명, 8억 5,4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매년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늘어가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여객운임 보조금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경남 통영군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 100%를 시·도비로 원하고 있는 만큼 울릉군의 어려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관용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9일(목) 제24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전관련 사업,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는 사업은 경북도에 우선권 부여 강력요구

황이주 의원(울진)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수출용 원자로 사업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역개발세 80여억 원 미교부와 관련해 도의원이기 이전에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 산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국면에 있음에도 행정력 부재로 실패했던 만큼, 그리고 타 실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출용 원자로는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2,500억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 자급 및 해외수출까지 전담하게 될 중요한 국가시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원자력 산업현장과 R&D 연계로 동북아 원자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우리도의 10대 전략프로젝트인 미래형 원자력 과학산업벨트화와도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난 7월, 전국 6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울진과 경주, 영덕 등 세 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초반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원전과 방폐장 등 국내 최대 원자력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업유치의 1회전 탈락은 말 그대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에 대한 정부 측의 대가와 인식이 겨우 이 정도인가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관련 사업,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는 사업은 우리 경북도에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왜 실패했는지 자성문을 제기해 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담합해 수출용 연구로는 기장군이, 그리고 조만간 추진될 스마트 원자로를 울주군을 민다는 소문이 사전에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실제 수출용 연구로 유치 공모 시 울산시 울주군이 사업유치를 포기하고 부산시와 함께 기장이라는 단일 지자체에 전력투구를 할 때 우리는 무려 세 곳이나 지원하였습니다. 한 곳에 올인을 해도 유치할까 말까 한 사업에 세 곳이 유치전에 나섰던 만큼 힘이 분산되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기초지자체들끼리 무리한 경쟁으로 시간과 예산 등 행정력을 낭비할 때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매겨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지나친 논리 비약일까요?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스마트 원자로와 제2원자력연구원 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속된 말로 '돈 되는 원자력 현안사업'들이 아직 적잖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 사업 유치전에는 시·군간의 결집력 강화를 바탕으로 유치 타당성 연구개발, 심사위원 대상자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유대 강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 활용을 철저히 하는 등 이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부디 좀더 사전에, 좀더 차분히, 좀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좀더 철저히 준비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전 소재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역개발세 문제입니다.

우리도는 작년 6월부터 울진과 경주에 교부해야 할 원전세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올 6월 현재 미교부액이 울진이 무려 70억 원, 경주가 13억 원에 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미교부 이유를 예산부족과 조기발주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대한민국 법률과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우리 경상북도, 민선시대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우리 경북도의 마인드가 겨우 이 정도인가라는 회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9월 9일(목) 제24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부모자격증제도 도입 적극검토, 실정에 맞는 대안마련 촉구

서정숙 의원(비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나라에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그리고 협회자격증이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나눔과 배려가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인 혼란과 갈등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학교폭력 등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아동성범죄, 엽기적인 패륜행각 등 흉악무도한 범죄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빈번한 범죄를 걱정만 할 뿐 아무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부모가 먼저 바로 서는 역할 재정립에 해결열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때 자녀 역시 그 모습을 모방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등이 발생하면 학교교육 혹은 사회구조에만 문제점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른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학교와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녀를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와 사회도 학생을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바른 인성을 가진 건강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부모가 부모다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의 부모교육 관련 예산은 매년 1,5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3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 관련 예산도 2010년 기준으로 7,7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관련 예산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관련 사업도 위기관리과정 혹은 취약계층가정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 자녀와 성장하는 부모교육,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2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예산으로 시·군마다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우며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0학년도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도 말 그대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위주로 부모역할과 관련된 자녀교육 지도는 과정의 일부로만 이루어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다보니 부모가 그냥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부모교육을 받아서 자신 내부의 미해결된 부분을 해결하거나 부부들이 가진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교육 과정을 적어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넣는다면 사후 문제 발생으로 감당해야 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와 전문가들은 부부에게 부모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데는 미용사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온전한 성인으로 만드는 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좋은 부모가 된다는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자격증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수료해 자녀와 따뜻한 관계형성을 훈련시키고 부모 코칭 등을 통해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자는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으로 부모가 부모다운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부모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9일(목) 제24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전면 백지화를 위해 경북도 차원 노력,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 촉구

변우정 의원(구미)

농수산위원회 소속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과 구미시 출신 김대호 의원님, 장영석 의원님, 심정규 의원님, 윤창욱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박태환 의원님이 공동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 물 부족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대구 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황당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40만 구미 시민들이 비분강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는 국내 단일공단으로 전국 수출의 10%, 경북 수출의 75.3%인 30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2,000여 개의 입주 기업체,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는 내륙 최대의 첨단 디지털 산업도시입니다.

만약 대구취수원 이전으로 구미에서 1일 95만 톤을 취수할 시는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으로 구미보는 조형물로 전락하고 해평습지는 사막화되어 생태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생활·공업용수 19만 톤과 농업용수 105만 톤은 수량과 수질악화로 구미 시민과 기업체가동에 막대한 피해로 국가공단은 더욱 피해를 입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공단입주를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에 따른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초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확대로 주민재산권 침해 등 교각살우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2008년 대구시에서는 용역비 2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낙동강 상류에서 추가방류가 없으면 갈수량 해결이 어렵고, 대구시에서 제시하는 1, 4 다이옥신은 구미

하류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퍼클로레이터는 도개 일선교 상류에서도 검출되어 대구 강정보 수질이나 도개면 일선교 수질이 비슷하여 '낙동강 오염원 차단에 예산을 투자하는게 효과적이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민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도 '대구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찬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구시민 71%가 반대하여 '대구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음'으로 판명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구시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는 조령 모개식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5,420억 원을 투자하여 정치적 이해와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짜맞추기 식의 취수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의 기대효과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처사이며, 정부시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경북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취수원 이전문제는 깨끗한 물을 먹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자기 집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 마당에서 우물을 퍼오겠다는, 대구시민만 맑은 물을 먹고 보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자가당착에 빠진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풍부한 수량과 개선된 수질을 대구 달성·강정보에서 자체 취수원 확보가 가능함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갈등만 초래하는 이러한 작태를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하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노력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에도 2008년 경남 남강댐에서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경남도가 적극 나서서 타당성 용역 중에도 강력히 반대대응하여 지금도 물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민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경북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9일(목) 제24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자발적 철회, 지방 지역 국회의원 법안을 보류나 반대 호소

김희원 의원(칠곡)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44명이 입법·발의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수도권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의 기업입지, 대학신설, 대규모 개발 등을 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로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진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그나마 지방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U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수도권의 블랙홀에 삼켜져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개발 및 공업화 시기 수도권 집중현상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담론과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과정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논리로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 국가균형 발전정책도 수도권도 살리면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는 논리이지만 인적 자원과 금융의 서울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2008년 11월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여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고, 새로운 산업인 IT산업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벤처기업 성공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그나마 성공한 벤처기업은 서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적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중앙집중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있는 오늘날은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효율적입니다. 자본이 국토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더 많은 자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방이 서로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자본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을 불균등한 지역들을 오고 가며 넘나들 수 있도록 전 국토에 네트워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노동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상기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절대 다수 경북 도민은 반대를 할 것이므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두어들이거나 지방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기 법안을 보류나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우리 경북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욱 빛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9일(목) 제24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국정감사 지방자치 종속화 초래, 시·도 의장단, 동료의원 전원 지방자치의 반석을 쌓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결의 촉구

박성만 의원(영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5분 자유발언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다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10월에 대한민국 18대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20년동안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는 즐기게 국정감사의 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안들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찌 됐는지 20년동안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급기야는 공무원노조에서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그리고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자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지난 30·31일날 제9대 도의회 도정질문을 우리는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외람되고 부끄럽게도 3백만 도민의 의정단상인 도의회에서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에 지사님이 보충답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경상북도 도청을 감사할 때 도지사께서는 그 국회의원들과 수십 시간에 걸쳐서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하느냐,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정 전반을 살살이 훑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0년 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에게 예측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늬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이지 아직도 중앙집권적 종속에 놓아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3백만 도민과 우리 동료의원들은 분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과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16개 시·도 의장단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의원들 전원이 이제는 지방자치의 반석을 쌓는 데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결의안을 촉구하자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측화시키려는 이러한 작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울분으로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권익과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3백만 도민과 도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국정감사에 저자세로 임하지 마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8월 30일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선의 감척 현황 및 대책과 수산자원 보호방안 등

박진현 의원(영덕)



질) 감척사업이 저조한 원인 및 향후 방안은?

답) 어선의 매매 가격 상승과 유가가 안정되고 어가의 고조로 어업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위주로 감척을 추진할 계획임.

질) 동해구 기선저인망 감척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답) 어업구조의 개선 및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함. 도에서는 그동안 감척보상금의 상향조정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입안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감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질) 참가자미, 도루묵에 대한 포획 금어기간 설정 방안은?

답)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금지기간 설정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가자미, 도루묵의 금어기간 설정은 어업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 해서 검토해 나가겠음.

질) 어종별 채포금지 체장 및 금지기간 설정을 위한 시험 조업을 통해 정착화하고 수산자원보호령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답) 도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매월 검찰,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활동도 병행해서 어업질서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질) 농촌지역에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인력의 효율적 배치 계획은?

답) 주민의 건강욕구를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보건정책 추진에 반영하겠으며 농촌지역의 보건의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편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활성화와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

질) 농촌지역 수요에 맞춘 보건소 탄력적 운영 방안은?

답) 농촌지역의 농번기 등에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야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등 보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이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도내 농어가 소득 및 어가경제 현황은?

답) 농가소득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타도는 하향 정체인 반면 우리도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농가부채는 자산 대비 비율 전국 평균이하인 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현실과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어가에 대한 통계조사는 현재 어종,어법이 다양한 수산업의 특성상 통계청에서 전국단위 통계만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역대 어가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음.

질) 농림수산분야 예산과 농어촌 소득증대 대책은?

답) 금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총 8,010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4조 4,051억원의 18.2%로 지난 2009년 19%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했음. 하지만 예산규모는 금년도 8,0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음.

또한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주도할 전문CEO를 확대양성하고 지역별 명품 특산품을 육성하고 식품, 산채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가공산업을 일으키겠음. 특히 영천 경마공원, 상주송마대회 등을 계기로 마필산업을 경북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또한 쌀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업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 해서 쌀가공식품기업 육성, 쌀소비확대 등등 쌀산업 혁신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 해나가겠음.

질)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 및 구체적인 대책은?

답) 2010년도 도내 전체 초·중·고 965개교 학생대상으로 교육청 68억원(40%), 도청(18%)과 지방자치단체(42%) 105억원, 총 지원비 173억원이며 2011년도 식재료 물가 인상분 및 1인 급식량 등을 감안한 확대지원 추진 계획임. 영주·안동급식지원센터와 문경영강영농조합, 경주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임.

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 없는 학교 중 초등학교 참여율이 낮은 이유,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과 주요 사업 예산 지원 현황은?

답) 중·고등학교에 비해 신청학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는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과 40대 과제 설정,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있음.

사교육 경감 대책 주요 예산 지원 현황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 지원 42억 3천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지원 275억 2천만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및 교복투사업 78억 5천만원, 튼튼 캠프 및 튼튼 교실 23억 3천만원 임.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8월 30일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관련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 등

나현아 의원(의성)



질)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배경과 경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 도청이전특별법상 개별사업 시행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문제로 신규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음.

조성원가 절감과 자금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우선이전기관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분양 해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원형지 공급 및 대형개발방식 등 조성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질) 인구 10만명의 행정중심도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답) 현재 동서5·6축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며, 중앙선 복선 전철화를 지난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어 탄력을 받고 있음. 도로와 철도 문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한편 북부 지방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문화기반조성, 종합 병원, 특목고설립 등 최고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대문화권사업, 낙동강 연안 플랜, 국존 국책사업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도 농업기술원 등 농업관련 기관의 의성군 이전을 통한 소외지역의 상생 발전은?

답) 신도시 조기형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에 소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도청신도시로 동반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도청이전 이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질) 소규모 논과 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확대추진 방안은?

답) 대구경지정리와 발기반조성사업은 주민호응도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큰 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ha당 단비가 6,000만원으로 대구경지정리사업이 3,200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사업비가 더 들어갈 뿐 아니라 국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건상 개발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시행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광특회계 국가직접 편성사업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투자 계획과 지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학력 향상 우수학교 운영사례 확산대책은?

답) 초등학교 기초·기본학력지도에 29억원, 초등학교 학력관리선도학교 운영에 2억 5,000만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22억원, 초·중등학교 학습부진학생 보충지도에 35억 5,000만원, 중등학교 명품 향상프로그램 운영에 6억원, 중등학력우수학교지원 5억원 등 2010년도에는 100억원을 지원 하겠음.

지역별로 경제환경, 교육환경, 학부모의 학력에 대한 관심 등의 차이가 심한 편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저소득층 자녀 및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아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이 미약하고 학교단위 기초학력 부족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함.

또한 학력향상 우수학교 운영사례를 일반학교에 자료를 제공 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제로화가 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8월 31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등

배수향 의원(김천)



질) 여성부지사 임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답) 임기내 적당한 시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으며, 여성 CEO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은?

답) 우리사회가 성적 차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우리도에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사실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단계별 컨설팅과 심층평가, 환류평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공직에 여성관리자 승진임용확대 방안은?

답) 조직내 남아있는 남성중심 문화를 바로 잡아 여성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방직고위 공직자 임명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질) 공공기관내 직장보육시설 시범적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와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답) 수요에 비해 공급이과다(보육충족률 74.8% 수준)하고 집근처 가정 보육시설 및 유치원·학원 등 대체 공급이 증가됨.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증가로 설치에 소극적이며 보육수당 지급 및 설립주체인 시군 단체장의 설치 의지 부족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소극적 정책 추진 등이 부진사유로 파악되고 있음. 향후 도비지원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직장보육시설 확충하고 경상북도·노동부·시군·기업체 간 직장보육시설 지원 업무협약 체결토록 함. 또한 노동부의 이행사항 촉구 및 기업체 의무사업장 조속히 설치토록 지도하겠음.

질) 국도비 지원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일부 시군의 동반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답) 시군 재정력 지수를 감안한 도비 차등 지원과 광특회계 같은 경우 성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보조비율과 관련한 사업기준도 차별화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 시군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국책사업 및 주요프로젝트 공동발굴, 중앙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 이전지원 사유는?

답)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 산하 수의과학 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검역원 3개기관이 통폐합을 추진하던 중에 업무성격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초 부산으로 이전할 대상기관인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이 우리도 이전기관으로 포함되었음.

부산시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음. 관련기관과 원만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김천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전국 8개 혁신도시보다 비교적 높은데 혁신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법정비에 따른 도 차원 인센티브제공은?

답) 조성원가 인하방안으로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도록 건의중에 있으며 국세, 지방세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안하여 조성원가를 인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김천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답) 현재 김천지역의 10개 고등학교 중 김천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김천여고 기숙형고교 지정 김천중앙고 기숙형고교 지정 하였음. 혁신도시 부지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신설 예정임. 2013년 초등학교 1교 개교 추진 중에 있으며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초 2교, 중 2교 고 2교 추가신설 예정임.

질)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방학 중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답) 방학중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249개교로서 50.4%에 해당됨.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중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종일반처럼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 서울시의 '행복한 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북교육청 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은?

답)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우수한 사회적 기업이 발굴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8월 31일

소형 벼 육묘 공장설치 지원방안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대책 등

정상진 의원(예천)



질) 육묘공장 설치수가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답) 도비 사업은 시군별 신청을 근거로 매년 1~2개소씩 균등하게 배정하고 있으나, 시군자체로 추가 설치하다 보니 전체 시군별 육묘공장 수는 다소 편차를 보임.

질)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형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방안은?

답) 도에서 지원하는 588㎡(178평) 벼 육묘공장은 지금까지는 제한된 재원으로 대단위 들녘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 소규모 농가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음. 앞으로는 165㎡(50평) 규모의 소형 육묘장을 추가 지원하여 고령농 및 소규모 벼재배 농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현재 시군별 소규모 육묘장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량이 확정되면 예산확보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질) 한우사육증가에 따른 송아지입식 자제 대책은?

답) 한육우 사육두수는 '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감소하다가 '02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후 지속 증가, '10. 6월 현재 2,734천두임. 시군,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을 통해 송아지 입식자제, 저능력 암소 자율도태 유도할 계획임.

질) 경북한우 차별화 전략 및 고급육 생산방안은?

답) 지속적인 가축개량과 한우등록사업 지원 등으로 '09년부터 1등급이상 출현율이 전국 평균 56.7%보다 상회(57.6%)함. 우량 송아지 생산·공급을 위해 암소검정사업을 통한 핵군농장조성 암소핵군농장 231호 8,700두(기조성 86호 4,500두, 진행 145호 4,200두) 축산기술연구소의 한우육종 개량기지화로 우수한 유전 능력 밀소 확보

질)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활성화 방안은?

답) 유통구조 최소화(6단계 → 4단계)를 위한 생산자단체 직판장 개설 확대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지도·점검 강화, 소브루셀라병 청정화 추진,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강화 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축산물이동판매 특장차를 이용한 대도시 판매 행사 확대

질)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농업대책은?

답) 2008 ~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 농작물재배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북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지역별 재배작물과 작기의 이동 및 작형과 품질변화, 병해충 발생양상의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자료화(DB화)를 추진하고 농작물재배 정보, 농경지 토양지도, 농업기상자료 등 농업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속성정보를 분석하여 영상으로 실시간 농업인에게 제공

질) 농업부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삭제용)?

답) 신규 돌발병해충 발생양상, 병징, 피해해석 연구와 농가에서 영농자료 활용을 위해 문제병해충 관련 책자를 발간하였고, 국가간 주요 돌발병해충은 식물검역원과 공동으로 연말 자료 발간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확대, 저온경감 조절물질 개발 또한 과수류 저온 및 서리방지시스템은 예비시험 추진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저감용 비료보급을 위해 비료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추진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메탄배출계수 개발 및 저감 방법 등 종합적인 연구 수행 중임.

질) 화재현장 5분이내의 출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 출동 체계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 대책 및 소방인력의 전문적 운용방안은?

답) 지역의 지형지물에 대한 지리조사, 소방차 불시출동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7월 2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0월 24일부터는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권이 부여되므로 소방출동로상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음. 또한 소방장 계급이하 비간부의 경우 소방서간 인사이동은 한 소방서에서 10년 이상인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소방서내에서의 인사이동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연고지에 우선 배치토록하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잘 아는 소방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음.

질)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전시대책은?

답) 도내 유물전시관 운영은 22개소, 18,184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전시관의 경우 상설 개방·전시시 도난·훼손 위험과 운영비 문제 발생. 정충사의 경우 도난방지·항온·소방 설비 부족으로 보관에 어려움이 있음.

201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시 재난방재시스템 설치비 신청 계획임.

질)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도난대비 보존관리대책은?

답) 화재에 취약한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감지기, CCTV 등 설치, 감시인력 배치, 도난·훼손·분실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계획 수립하고 또한 개별 현황카드 작성 및 DB구축, 전문기관 위탁보관 유도, 소유자 보존관리 교육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영주댐 건설에 따른 회룡포와 무섬마을 경관보존대책은?

답) '09. 12 ~ '14. 12까지, 8,482억원, 총저수량 181백만㎥ (안동댐1/7)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퇴적토 준설시 1:5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침식을 최소화하고 댐 건설후에도 유사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질) 일본 등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환수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답) 해외반출 우리 문화재 수는 116,896점(일본 61,409, 미국 28,297, 기타 27,290)이며 지금까지 환수 현황은 8,160점 (일본 5,107, 미국 1,233, 기타 1,820)임. 도 차원의 우리 문화재 되찾기 운동은 가야·신라문화재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반환논리를 개발하여 반환추진위원회 구성,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전략적 제휴 시민단체·종교계·학계와 공동으로 반출문화재 환수 국민여론 경북도가 선도 하겠음.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8월 31일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관련 대책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등

김희원 의원(칠곡)



질)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건설의 필요성과 대책은?

답) 동남권 신국제 공항은 국내최대 산업벨트인 영남권 산업 단지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고, 특히 수출품이 부품소재 위주인 대구경북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현재 건설이 한창인 포항, 구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1,000만인 서명운동 및 상공인 중심의 공감대 확산과 수도권의 반대논리 차단 등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대구경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지를 결집 하였고 지난 6월에는 영남권 4개 시도가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단을 구성하여 유치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차원의 한시적 프로젝트팀 설치는 지난 6월에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서 T/F팀을 이미 구성하여 유치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지난 7월에는 지역상공인이 주축이 되어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특위를 구성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큰 힘이 될 것임.

질) 칠곡보 설치로 인한 약목면 일대침수 우려에 대하여?

답) 칠곡보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12월 보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및 영향검토 조사결과 칠곡보 관리수위보다 낮은 구간의 지하수위가 농경지의 바닥보다 약1.6m이하에 위치하여 지하수위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관리수위보다 낮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기존 배수장 외 추가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강제 배수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질)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용역 재조사 실시 의향은?

답) 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및 세부설계는 지하수위 영향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임. 사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재 용역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예정임.

질) 주민설명회 개최 및 농지리모델링 추가 편입 관계부처 건의할 의향은?

답)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관련 해당지역(칠곡)의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 - '10. 3. 8, 2차 - '10. 6. 21) 농지리모델링 추가 편입은 경제적 타당성, 사업기간, 공정의 수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제외지역에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또는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음.

질) 석적교의 개교시기 및 BTL 사업으로 계획할 때 타당성 있는 이유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대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방식을 바꾼 사유는?

답) 2013년 3월 1일부터 개교가 가능하나, 당초보다 1년 늦어졌음. 석적교 설립추진 일정에 따라 2010년 4월 5일 칠곡군에 진입도로 설치에 대한 최초협조요청을 한 후 두차례 추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2010년 7월 26일 계획통보를 받았고, 2010년 8월 4일 최종확정통보를 받게 되어서 당초보다도 개교 예정일과 준공시기가 지연되게 되었음. 또한 BTL 사업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은 재원조달 방법의 차이로 개교 일시 등 석적교 설립추진 일정에는 하등의 차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8월 31일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도내 농촌문제 및 농가대책 학생체벌 및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대책 등

이 달 의원(경주)



질) 공공일자리 중심 실업대책 개선방안은?

답) 일자리 정책의 기초를 한시적인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한 수익창출 사업인 자립형 공동체사업 즉, 명품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등 시군별 1개소 이상씩 추천하는 한편 정규직 채용률이 높은 중소기업 인턴제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적극 활용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과 함께 일자리지원센터 재취업지원센터,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을 통한 좋은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 청년층 일자리수 감소사유와 대책은?

답) 실직상태인 청년층의 대다수 즉, 76.4%가 취업경험자로서 일자리 미스매칭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화도 그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음. 청년창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고 해외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강화하여 지역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음.

질) 건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은?

답) 산·학·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기에 구축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상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도민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질) 투자유치 및 사후 관리방안은?

답) 지금까지 우리도가 유치한 기업은 총 57개로 이중 63.1%에 해당하는 36개 기업은 이미 가동중이거나 공사중에 있음. 15건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함.

다만 6개 기업정도는 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세계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요급감으로 관망중이거나 일부는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힘들게 유치한 기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제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시 사후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현장 밀착지원, 기업과의 핫라인 강화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 도내 농촌문제 및 농가대책은?

답) 2009년 경북농업 인구 20만호에 농가인구 48만명, 15.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5세 이상 경영주가 10만 5천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함.

인재와 기술력이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이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민선4기 때부터 농민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5천명을 양성, 귀농정책과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R&D를 활성화하면서 경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소득을 최대화 할 계획임. 아울러 소비·가격 문제에 부딪쳐 있는 쌀 산업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차 생산중심의 쌀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 논농업의 다양화를 위한 타작물 전환 정책, 기능성 쌀재배단지 조성 등 민선 5기내에 역대농 2만호 육성할 계획임.

질) 경상북도 재정자립도 및 재원확보 방안은?

답) 재정자립도(시군포함) : 29.3%(도단위평균 31.6%), 9개 도중 우리도 5위

※ 전년도 27.7%대비 1.6% 상승(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재정력 지수 등 상승)임. 현행 지방세의 세원구조는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와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에 다소 어려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정리 등 자주 재원 확충활동 전개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 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음.

질) 학생 체벌에 대한 견해와 소신과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의 심각성과 대책은?

답)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체벌과 관련하여 첫째 체벌을 금지하고 다양한 대체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안과, 두 번째 신체접촉 및 도구사용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기 등 간접적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 등을 마련 해서 정책토론회, 공청회, 연수회 등을 통한 법령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령이 개정되면 교육전문가, 교직원, 학부모, 교원, 학생 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벌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음.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900여 명의 상담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집으로 콜> 사업을 학교와 연계 운영하여 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경찰청에서 돕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확대실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BTL사업에 대한 견해와 BTL사업에서의 투명성과 비리 근절 대책은?

답) 학교신설,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은 교육 재정여건을 감안 향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BTL 사업은 최대한 억제코자 함.

질) BTL사업의 투명성과 비리근절 대책은?

답) 전문기관(KDI, EDUMAC)에 평가용역 의뢰하여 BTL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하고 책임감리를 실시하여 감리자가 모든 공정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관계공무원과 시공사간 업무 추진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 관련업체와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의/장/단

C h a i r G r o u p

「제5회 여성농업인대회」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상호 의장(경주시2, 한나라)은 8월 28일 영덕고래불해수욕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주최 제5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FTA협상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어 우리농민들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한국 농업의 진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농업을 확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3일에는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출범기념식에 참석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온 국민적 저력의 바탕에는 오직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난극복에 앞장서신 영령들의 호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킴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한 불굴의 호국의지와 위국헌신정신은 후세에 귀감이 될 정신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9월 7일에는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2010경북국제 항공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인 IT산업기반과 방위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북의 특성을 살려 항공부품산업을 핵심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연관산업의 시너지효과와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경북이 항공 부품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의회는 물론 항공부품관계기업, 학계 국내외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혁신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1일에는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주한아프리카대사 초청 새마을 연수 오찬에 참석을 통해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의 희망운동으로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 세계화에 기여하고 지난날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아프리카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인류가 공존하고 번영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8월 5일에는 한수원 임시이전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8월 6일에는 2010경주 한여름 꽃축제, 8월 13일 55대승호 승선가족위로, 8월 21일 용강동 화합의 한마당 동민노래자랑, 8월 19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8월 16일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8월 24일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관련 긴급간담회, 8월 23일 의원연수회 개최, 9월 3일 제1회 도 평생학습축제 개최식, 9월 12일 제9회 경주시자율 방법연합회 범죄예방결의대회, 9월 9일 대경권 지방의회의원초청 지역발전정책설명회, 청년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회 경북 어울림 생활체육파크 골프대회」 등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상조 부의장(경산시2, 한나라)은 8월 14일 경산 남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2회 경북 어울림 생활체육파크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으로 노력하는 장애인생활체육인들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8월 14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합기도대회」에 참석하여 생활체육합기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9월 15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회 경상북도직업교육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전문 직업인 육성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9월 15일 경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일대학교자동차부품시험 지역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상북도선수단 결단식」 등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필각 부의장(칠곡군1, 한나라)은 9월 1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0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9월 6일에는 구미1대학에서 열린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상북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 및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9월 10일에는 「2010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해외이주 여성들을 격려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2010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에 참석하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역활을 강조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아동성폭력 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안전지킴이 회원들을 격려하고 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난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대회」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 격려

강영석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시2, 한나라)은 8월 31일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하였다.

9월 3일 「상주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구호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9월 9일 상주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청이전 신도시예정지 등 현지확인, 각종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문경시2, 한나라)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 현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참석 각종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9월 3일 안동에서 열린 제1회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석 도 및 문경지역 행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9월 9일 대경권 지방의회 의원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제11주년 기념 구미마라톤클럽 가족체육대회」 참석, 생활체육 저변확대 노력

구자근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3, 한나라)은 8월 29일 10시 구미시 현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가한 「제11주년 기념 구미마라톤클럽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회원들을 격려하고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 3일에는 구미시 광평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석하여 행사준비 관계자 및 참여한 주민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란의병 전적 추모제」에 참석, 호구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자고 주문

권영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봉화군, 한나라)은 9월 6일에는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화장산에서 거행된 「임란의병 전적 추모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호국정신으로 맞서 싸운 류종개 장군을 비롯한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자고 주문하였다.

9월 9일에는 봉화웨딩홀에서 지역내 기관장 및 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한 「봉화일보 1주년 및 봉화일보인터넷뉴스 창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언론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5회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 대회」 참석,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주길 당부

김기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영덕군1, 무소속)은 8월 28일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회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농연 전국대회」 참석, 농업경영인 회원 격려

김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6, 무소속)은 8월 18일 충남 부여군 굿뜨래 광장에서 개최된 「한농연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FTA 파고 등으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영농환경 가운데서도 곳곳이 경북 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회원들을 격려했다.

8월 29일 「한국 쌀전업농 경상북도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농업현안사항에 대해 담화를 나누고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였다.



「2010년도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참석, 경제살리기운동 동참분위기 조성 당부

김말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8월 13일 포항수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55대승호 귀환대책 위원회」 방문하여 피랍승선원 가족을 만나 위로하며 안전귀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9월 10일에는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도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참석하여 경상북도 추진중인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온 강사진들과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제1회 경북평생학습축제」에 참석, 테이프 커팅 및 행사관계자 격려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2, 한나라)은 8월 18일, 충남 부여군 굿뜨래광장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9월 3일, 안동시 낙동강변 탈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경북 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여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경북도 및 안동지역 행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9월 10일, 안동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북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행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9월 13일,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전찬걸 위원장과 함께 “일본방위백서 독도영유권 관련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담회를 가졌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현지방문, 관계자 격려 및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

김세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농협중앙회 구미연수원에서 개최된 「2010년 의원연수」에 참석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받고 낙동강살리기 사업현장인 구미보를 견학했다.

9월 2일부터 9월 3일 양일간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미에 소재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LG디스플레이(주)와 포항에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을 현지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협력하여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와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김수용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현장, 영주 평은 - 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청송군, 한나라)은 8월 10일 도의회 의장과 소속 위원들을 지역구인 청송으로 초청하여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포항·안동·구미·경주·칠곡·경산 등 지역교육 기관장들과의 교육현안 논의사항과 교육시설 방문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청취한 교육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지역 간담회」에 참석, 경산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제시

김영식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경산시1, 한나라)은 9월 2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시 지역 도의원, 경산시의원,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지역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의회와 상호협력하여 경산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9월 4일에는 경산시 중방동사무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을 위로·격려하였다.

아울러 중방동농악보존회를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농악보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 방문, 시설운영계획 청취, 지원문제 의견교환

김원석 교육위원회 위원(교육1)은 9월 1일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을 방문하여 2010년 주요 추진사업인 제2전시실 현대화사업과 천체투영실 운영 계획, 경북과학고 이전 후 시설 활용 계획, 일선학교 과학교육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9월 6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유아교육체험장 설립 추진, 포항초등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 관내 학교 통·폐합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북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 농촌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

김종천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8월 25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북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농촌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8월 28일에는 영주선비수련원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여성포럼」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국 미래 발전의 주역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운석 국회의원,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도 함께 자리를 하였다.

8월 31일에는 오전 11시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영주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주역이 되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에 참석, 참가선수단 격려

김창숙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8월 14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단을 격려하였다.

9월 5일에는 대구 희망교에서 열린 「4대강사업 저지 대구경북 시도민 문화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경북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핵심구간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매전산악회 한마음대회」에 참석, 지역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

김하수 행정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1, 무소속)은 8월 5일 각마을가든에서 개최한 「매전산악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8월 12일에는 청도농협 하나로마트가 주최하고 서울하나로클럽에서 개최된 「청도복숭아 판매 홍보전」에 참석하여 청도복숭아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신제강 고도제한 완화 집회」에 참석, 관계부처에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줄 것을 주장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8월 11일 포항 용흥동 소재 충훈탑에서 실시된 「6·25 60주년 전몰 학도 의용군 추모회」에 참석하여 유공자 가족 및 참전 학도 의용군 원로들을 위로하는 한편 전몰 학도 의용군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당부했다.

8월 17일 국토부차관, 국방부차관, 이병석 국회의원과 함께 포스코 신제강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포항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빠른 해결책을 요구했으며, 8월 23일에는 전문건설전기, 기계협의회 임직원 1,500여 명이 모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제강 고도제한 완화 집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계부처에 빠른 시간 내 해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제12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참석, 지역농업 경영인들의 노고 격려

김희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칠곡군2, 무소속)은 8월 18일 충남 부여군 굿뜨래광장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농업 경영인 전국대회에 지역농업경영인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현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건설현장에 참석하였다.

9월 3일 안동시 탈춤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회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노고가 많은 도 및 칠곡지역 행사 관계자들을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같은날 칠곡 왜관지구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9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3층에서 경상북도 등 영남권4개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동남권신국제공항의 타당성과 최적입지에 대한 심포지엄”에 경상북도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경북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 개소식」에 참석, 좋은 프로그램 개발 당부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9월 1일 김천시 아포읍 「경북아동 청소년 무지개 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운영 관계자에게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10일 김천시 지좌동 「배달이 성화원 아동기숙사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14일 김천시 평화동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참살기 좋은마을 준공식」에 참석,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 당부

나현아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8월 2일 의성군 안사면 중화2리 「참 살기 좋은 마을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8월 20일에는 다인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인농협대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농협대의원들에게 지역발전과 화합을 강조하고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 만들기 당부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8월 9일 예천양수건설처인 한국남동발전(주) 주최로 열린 「예천 양수발전소 하부댐 담수 기념식」에 참석하여 발전소 건설에 애쓰는 임직원 및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하부댐 완공으로 담수를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8월 25일 안동체육관에서 '푸른농촌 희망 찾기'란 주제로 개최된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농촌지도자 회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업 발전의 원동력인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제고와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군재활증진대회」에 참석, 지역사회발전의 일원으로 역할 당부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2, 한나라)은 9월 2일 청도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청도군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하여 재활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13일 청도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청도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농업경영인 단체의 단결과 화합된 모습으로 신바람나는 농촌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벼무논점파시험단지생육상태 중간평가 보고회」에 참석, 기술개발 농가보급 당부

박기진 동남권신국제공항공유지특별위원회 위원장(성주군2, 무소속)은 7월 29일 수륜면 남은리 법산들에서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벼무논점파시험단지생육상태 중간평가 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벼무논점파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농가 보급에 힘써 영농비용을 경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3일 「성주군 유성회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성주향교, 유도회, 박약회, 담수회 등 성주유림의 원로어르신과 회원들을 만나 인사와 담화를 나누었다.



동국대학교 「가을학위 수여식」에 참석, 개인적 성공과 모교발전에 노력 당부

박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주시1, 한나라)은 8월 23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열린 「가을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사회에 나가 개인적 성공과 함께 모교를 위한 일에도 적극 앞장서는 역군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8월 24일에는 경주청소년수련관에 열린 「제3기 마을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개강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의 리더로서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회 국제기타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외국인들에게 좋은 추억의 행사가 되도록 당부

박성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주시2, 친박연합)은 8월 9일 영주 선비촌문화수련원에서 열린 「제1회 국제기타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며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9일 영주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이산면 수몰민 300여 명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수몰민들의 이주대책, 생계지원 등을 건의하는 한편 경상북도 차원에서 수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제5회 경상북도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 권익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앞장

박진현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영덕군2, 한나라)은 8월 18일 충남 부여군 굿뜨래광장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농업 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선도자로서 긍지를 갖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8월 28일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에서 도내 여성농업인 2천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된 「제5회 경상북도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구미지역 조리사 연수회」 참석, 양질의 급식을 위한 노력 당부

박태환 교육위원회 위원(교육5)은 9월 4일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구미지역 각급학교 조리사 600여 명이 참석한 「구미시 조리사 연수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조리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인지를 역설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성심 성의껏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어르신 체육대회」에 참석, 행사관계자 격려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김천시2, 한나라)은 8월 3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천 전국가족연극제 폐막식」에 참석하여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 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4일에는 김천 강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5회 하나세상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저녁에는 대한미용사회 김천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수변생태공간 조성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 생태공간의 성공적 조성 당부

변우정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5, 한나라)은 8월 13일 「구미시 양포동민 체육회」에 참석하여 스포츠를 통한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13일 구미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된 「수변생태공간 조성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대표적 경관을 거점으로 한 낙동강 수변생태공간이 성공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산지역 교육현안 간담회」 참석,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한나라)은 8월 2일 교육위원장과 함께 경산지역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경산 지역 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경산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북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낙동강 살리기 30공구(구미보) 방문 현황 애로사항 청취, 대책논의

심정규 교육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8월 5일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50여 명과 함께 구미시 해평면에 소재한 낙동강 살리기 30공구(구미보)를 방문하여 건설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골재업자, 내수면 어민, 강변 경작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산소방서) “자치시대의 지역주민과 의회의 관계”란 주제로 특별강연 실시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경산시3, 한나라)은 8월 18일 충남 부여군 굿뜨래광장에서 열린 제12회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지역농업경영인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현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6일 경산소방서 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주민과 의회의 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9월 9일 대구 엑스코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경권 지방의회 의원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 참석 의견을 나누었다.



「새마을 호프(HOPE) 바자회」에 참석, 기금이 유익하게 쓰이도록 주문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구미시2, 한나라)은 8월 19일 (사)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 주최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7회 경북장애인 지도자 연수」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8월 20일 형곡 공원 주차장에서 지역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새마을 호프(HOPE) 바자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관한 새마을단체 회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진 기금인 만큼 연말연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경주 JC특우회 족구대회」 참석,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이 달 교육위원회 위원(경주시4, 미래연합)은 8월 5일 경주 건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신경주 JC 특우회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JC가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이념 아래 모인 조직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단합된 역량을 발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9월 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사회 복지의 날 기념 「2010 경상북도 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하여 삶의 현장에서 따스한 손길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 등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경북여성지도자 그린워크숍」에 참석, 관계자 격려

이경임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비례, 친박연합)은 9월 2일 농협창녕교육원에서 개최된 「경북 여성지도자그린워크숍」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7일에는 문경시 체육관에서 도내 바르게살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바르게살기 한마음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당부하였음.

한농연 및 농촌지도자 대회, 서울 HOT페스티벌 참석, 영양고추 홍보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영양군, 한나라)은 8월 18일 충남 부여군 굿뜨래 광장에서 개최된 「한농연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농업경영인회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경북 농업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8월 25일 안동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으로 경북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하였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10영양 HOT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영양고추를 서울시민과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국제친선연맹회장」 피선, 외국자치단체와 교류확대 및 번영에 노력

이시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문경시1, 한나라)은 8월 14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 열린 「제14회 문경 칠석차 문화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9월 9일에는 제9대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연맹회장에 피선되어 양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번영에 더욱 힘을 줄 것을 다짐했다.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단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 당부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1, 한나라)은 8월 30일 안동시 풍천면에 문을 연 「도청이전 신도시사업단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9월 3일에는 안동탈춤공원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평생배움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성 다문화가족 경진대회」 참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좋은 시책 당부

이왕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의성군1, 한나라)은 8월 25일 의성군 점곡면 「점곡노인대학 개강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9일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 「의성 다문화가족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서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시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청이전신도시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방문, 추진상황 청취

이용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울릉군, 한나라)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현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참석하였다.

9월 3일 안동시 탈춤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회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석 도 및 울릉지역 행사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9월 9일 대경권 지방의회 의원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 참석 의견을 나누었다.





「포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참석, 선수단 격려

이정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7, 한나라)은 9월 7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시 농업 경영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격려하고, 9월 10일에는 포항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포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경연대회를 참관하며 지역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녹색성장산업투자펀드 협약식」에 참석, 중소기업 자본강화 및 경제활성화 기대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포항시5, 한나라)은, 9월 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 산업투자펀드 협약식」에 참석하여 총 300억원 규모로 결성될 투자펀드협약식을 통해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본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7일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0경북국제항공포럼」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경상북도가 항공부품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구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 참석, 독도 중요성 홍보 당부

장두옥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8월 16일 포항시청 문화복지동에서 열린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명예대원 발대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독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앞으로도 널리 펼쳐나가 주기를 당부했다.

9월 10일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장애아동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기를 당부 하고 장애아동가족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9월 11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4회 포항시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 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소방기술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품격있는 충효교육 세미나」 토론회 참석, 충효의 중요성을 강조

장세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포항시4, 한나라)은 8월 20일 한국유네스코 경북협회 주최로 포항 시청에서 열린 「품격있는 충효교실 세미나」에 참석, 현대사회에서의 충·효·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월 28일에는 경주 양동초등학교에 열린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선포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명품인동 구현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순회 간담회 실시, 현안사항 주민의견 청취

장영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구미시4, 한나라)은 8월 18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관련 지역민원사항을 검토 및 협의 처리하였다.

8월 30일 인동동 관내식당에서 시의원, 관할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공아파트 주민 40여명과 함께 소통을 통한 명품인동 구현을 위한 지역 주민과의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지역간담회는 9월 16일까지 10개구역으로 나누어 통·반장 새마을회,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종합복지회관관립,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등 현안사항과 관련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초록별 장난감 도서관」에 참석, 시민들의 많은 이용 당부

전인철 문화환경위원회 의원(구미시1, 무소속)은 9월 2일 구미 금오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초록별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 9일에는 구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에 행사에 참석하여 사회 복지종사자, 자원봉사들을 격려했다.



「석호항 바다낚시공원 사업」 현장 확인, 사업추진상황과 지원사항 점검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울진군1, 한나라)은 9월 4일 지역 어촌계 주민들과 함께 선박을 이용하여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도의 지원사항을 점검 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일본정부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기자단 간담회 개최하여 우리 영토 독도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제5회 경상북도여성 농업인대회」에 참석, 농촌여성 역할의 중요성 강조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군2, 한나라)은 8월 28일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5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농촌에서 낚날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작헌례」에 참석, 심산에 대한 업적 홍보 강조

정영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9월 1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0회 경북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참석하여 대상을 차지한 유치부 및 초등부 각 1팀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는 한편 오는 10월 6일에 있을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도 경북대표로 출전해 우수한 성적 거둘 것을 기원했다.

9월 4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족운동가 이자, 성균관대학교 설립자인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작헌례」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업적을 널리 기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창립 64주년 기념 지도자 전국대회」에 참석, 미래의 여성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주문

채옥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6, 한나라)은 8월 11일 포항시 기계면민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여성농업인 포항시연합회 연찬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여성의 경쟁력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다며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했다.

8월 28일 제8회 포철공고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야구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와 참석 선수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써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9월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창립 64주년 기념 지도자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미래의 여성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에 참석, 명품 청도교육 실현 당부

최우섭 교육위원회 위원(교육2)은 8월 6일 청도군과 청도교육지원청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 분위기를 확산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 확대 등 향후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명품 청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주 희망촌 방문, 사육시설 시찰, 폭염 가축 폐사위험, 방역에 최선 당부

최학철 농수산위원회 위원(경주시3, 한나라)은 8월 9일 경주시 희망촌을 방문하여 사육시설을 시찰하고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위험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주문하였다.

9월 14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개최된 「경주시 2011년도 도비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원 초청 설명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천교육지원청 현안사항 간담회」 참석, 지역 인재육성 당부

추재천 교육위원회 위원(교육3)은 8월 18일 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201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린북문만들기 실천결의대회」에 참석, 깨끗한 북문만들기 당부

한재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상주시1, 한나라)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현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9월 13일 상주시 외서면 다문화 결연대회에 참석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 현재 우리 모두가 내가족 같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도와야 하는 한다는 취지의 축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14일 상주시 북문동 동민화합행사 및 그린 북문동 만들기 실천다짐 결의대회에 주민 200여 명과 함께 참석해 동민들이 하나로 단합하여 깨끗한 북문동을 만들자는 축사를 하였다.



「포항시여성농업인연찬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 애로사항 청취

한창화 농수산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8월 11일 「포항시 여성농업인연찬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였다.

8월 25일 안동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북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촌지도자 단체가 농촌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0 아시안 게임 탁구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석, 참가선수단 응원메시지 전달

한혜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8월 31일 영천체육관에서 펼쳐진 「2010 아시안 게임 탁구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석하여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참가선수단에게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9월 4일 영천 강변공원에서 개최된 「제22회 영천시 농업경영인 가족대회」에 참석하여 농사일로 바빴던 지난일들은 모두 잊고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는 각 읍·면·동 부스를 돌며 농업경영인 가족들의 그동안 노고를 격려했다.



「안동교육지원청 현안사항 간담회」 참석, 교육발전이 곧 안동발전 강조

홍광중 교육위원회 위원(교육4)은 8월 10일 안동MBC 「향토 문화상 시상식 및 창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안동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 하고, 관계자들에게 교육발전이 곧 안동의 발전임을 인식하여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도정협력실개소식」 참석, 군위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강조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 한나라)은 8월 18일 군위군청내 도정협력실 개소식에 참석 군위발전과 분열된 지역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에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 도시 예정지, 안동 구담보 낙동강 살리기사업현장, 영주 평은-녹전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및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9월 3일 안동에서 열린 제1회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석 도 및 군위지역 행사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2010 울진경찰서 자율방범대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 유공 표창 수상자 격려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8월 7일 울진 후포해수욕장에서 후포 청년회 주최로 이틀간 열린 「2010 전국 비치사커 대회」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축사를 통해 “좀 더 짜임새 있는 준비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8월 28일 울진 죽변종합운동장에서 울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주최로 개최된 「2010 울진경찰서 자율방범대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유공 표창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도일보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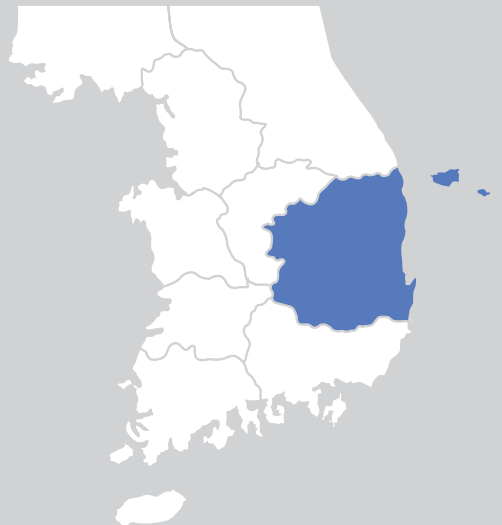
71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자치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